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순항

목포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목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 중인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목포시는 21일 "올해 3월 착공한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임시도로 개설, 잡목정리 등 기본 토목사업(공정률 60%)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맛의 도시 브랜드화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관광객 증가세를 촉발시켰다.



목포시와 전남도, 여수에슬랜드는 2019년 7월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위는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감도. <목포시 제공>

1천350억 투입 대규모 숙박·레저시설 구축 가족형 관광객 유치 등 목포 관광 전환점

지난해에는 목포 관광 패러다임을 바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좌도는 목포 북항 선착장에서 2.4km 떨어진 대지면적 29만6천㎡, 시설면적 10만7천㎡의 섬이다. 여객선으로 10분 가량 소요된다. 장좌도는 섬의 형태가 남북으로 양팔을 길게 벌리고 있는 형상이라 장좌도라 불린다.

장좌도는 대다수 목포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최근까지 폐선박 및 선박 해체 작업장으로 이용됐다. 밀려드는 해상쓰레기가 해안가에 방치돼 몸살을 앓기 일쑤였다.

그렇게 방치됐던 장좌도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목포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역점 추진 중인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다.

목포시는 2020년 1월 28일 대한민국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됐다. 1천만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목포시만의 차별화된 기획이 필요했다.

관광거점도시는 고유 지역관광 브랜드를 지니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를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수도권에 치중된 외국인 관광객 지방확산을 위해 1개 거점도시에 5년간 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5년간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특화 관광자원·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수용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 추진하는 만큼 목포 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 많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 조성은 필수다. 목포시는 관광도시 필수 기반시설인 가족형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목포시 관광객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99만2천명 ▲2016년 207만9천명 ▲2017년 259만4천명 ▲2018년 388만8천명 ▲2019년 654만1천명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반면, 목포시 관광호텔 현

황은 2019년 말 기준 총 시설 5개소, 객실 394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목포 관광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상 시가지가 해안에 인접해 매립 외에는 관광기반시설 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여서 목포시 녹지 30km² 중 약 30%를 차지하는 도서지역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본 유치에 나선 결과, 목포시는 2019년 7월 전남도, 민간사업자 여수에슬랜드와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시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맛의 도시 선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해변맛길 30리 길 조성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레저시설을 겸비한 대규모 리조트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에 걸맞는 '관광 트렌드 명품도시'로 변화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1천35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숙박시설로 본관동은 520편의 주차장과 73개 객실, 트리아트체컬관, 세미나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163개 객실을 갖춘 독채 펜션 43동이 들어선다.

주요 레저시설로 워터파크, 레일바이크, 스카이사이클, 질라인 등이 있다. 조용히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4천평 규모의 양떼목장, 600평 규모의 생태갯벌 등도 들어서며 섬 전체의 60%가 넘는 공간이 녹지로 조성된다.

여수에슬랜드㈜가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이용객이 55만6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는 생산유발효과 2천98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천202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57명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리조트 이용객 소비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41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9억원, 고용유발효과 463명 등으로 예상된다.

부수적인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장좌도를 이용하면 인근 섬 연륙으로 침체돼 있는 연안여객선 이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리조트 이용객들이 목포 도시를 통과, 체류하게 되는 만큼 인근 상권이 살아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종식 시장은 "명품 레저 숙박시설인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가 착공돼 목포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융합해 목포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신안 퍼플섬 아스타꽃 축제 조기 마감

한파로 낙화 축제 지속 불가

신안군은 2021 퍼플섬 아스타꽃 축제를 조기 마감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퍼플섬 아스타꽃 축제는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박지도에서 개최 중이었으나 갑작스러운 한파의 영향으로 꽃이 일찍 지고 있어 조기 마감을 결정했다.

퍼플섬 아스타꽃 축제는 기간 내 전국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안

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입장 인원도 제한하는 등 안심축제로 운영했다.

하지만 64년 만의 이상 기온으로 가을 한파가 찾아와 꽃이 일찍 낙화함에 따라 축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우량 군수는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보기 위해 방문하고자 했던 관광객들에게 죄송하다"며 "내년에는 더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하의3도 농지탈환운동 추모제

신안군은 최근 하의면 하의3도농민은 동기념관에서 '제13회 하의3도 농지탈환운동 추모제'를 개최했다. <사진> 추모제는 분향을 시작으로 농지탈환운동 역사 보고, 제주시, 추도사, 헌화, 기념비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는 박우량 군수, 김수현 기념사업회장, 박영일 재경신안군향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간소하게 열렸다.

하의3도 농지탈환운동은 조선시대 하의3도 주민들이 개간한 농토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인조가 1623년(인조 1년) 20결의 토지를 정명공주에게 하사한 일이 단초가 됐다.

하사 후 4대가 지나면 절수(징세)의 권리를 반환해야 했으나 세도가들은 반환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까지 정치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하의3도 농민들은 350여년 긴 시간 동안 토지소유권을 찾기 위해 농지탈환운동을 전개했다. 1950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소유권 무상반환' 결의를 얻어냈고 1994년 이준정기를 완료했다.

하의3도 농지탈환운동은 항일농민운동으로 인정받아 하의 농민조합 집행위원이었던 최용도·최용채 등 2명이 지난 8월 15일 독립유공자 서훈(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신안=양훈기자

목포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 수상

중소도시 부문 종합 2위 국토부장관상 쾌거

목포시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앞으로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사업 등 각종 응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돼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포시는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있는 도시 정책 유도를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평가는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4개 부문 72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으며 목포시는 중소도시 부문 종합 2위에 올랐다. 목포시는 4개 부문에서 모두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공형 100원 택시 운영 ▲도시디자인·경관사업 ▲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자전거 터미널 조성 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목포=정혜선기자

마스크 공장도가판매

도·소매 환영 OEM 환영

덴탈 장당 100원
*2000장 미만 택배비 소비자 부담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시 북구 서하로(오치동)254 문의: 080-374-5046

제조 공장이 필요하십니까?

땅값의 2~3억 원만 있으시면~

토지면적 3,300㎡ (구, 1,000평)이하
자금없이 건축하여 드립니다.

무상 보조금(10~20억) 상담해 드립니다.
서천, 영광, 태안 산업단지 입주하실 분

네이버 카페 산단입주.com 검색

자연과생명부동산컨설팅 080-374-5046
광주 북구 서하로 254

당뇨, 고혈압, 변비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비그라올라

비그라올라 2개월 분 ₩98,000원

직접 체험하십시오!
7일분 조건없이 택배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5,000 소비자 선불부담)

드신 후 60분 후 체크하십시오!

자연과생명연구소 전국 취급점 및 대리점 모집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유니온)
체험분은 문자로만 주문받습니다 010-4624-5046